



Hana FX Weekly Letter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5. 8. 11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주간 달러/원 동향(8/4~8/8)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미 비농업 고용지표에 연준 금리인하 전망에 힘이 실리자 달러 약세 나타나며 환율은 큰 폭 하락 출발. 이어 지역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약달러 지속되었으나 수급상 결제수요 우위에 상승 전환
- 중반, 미 서비스업 가격지수 상승에 디스인플레이션 약화 가능성 부각되면서 연준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추가 상승세 시현
- 후반,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지지 발언이 이어지면서 달러 약세 분위기 속 재차 하락. 이어 주 후반, 저가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반등에 연동되며 1,390원선 근접 마감

주간시가

1,390.0

주간고가

1,391.4

주간저가

1,379.7

주간종가

1,389.6

주간등락

-0.4

달러/원 전망

- 달러/원 환율은 높아진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달러 약세 반영하며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. 시장은 구글러 연준 이사 후임으로 미란 백악관 CEA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연준 내 비둘기파 성향이 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해갈 것으로 보임
- 다만, 수급 측면에서 결제수요가 우위를 보이고 있어 1,380원 초반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
- 한편, 금주 발표 예정된 미 CPI, PPI 등 주요 물가 데이터 결과에 따라 연준 금리인하 전망이 더욱 확실시되거나 반대로 되돌려질 수 있음. 이는 환율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예상거래범위

1,375원 ~ 1,395원



유로·엔화 동향 (8/4~8/8)



유로화 동향

- 초반, 미 고용시장 냉각 우려로 인한 달러 약세에도 EU의 대미 보복관세 유예 조치에 유로화는 약세 출발. 이어 유로존 PMI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폭 반등
- 중반, 연준 위원들의 도비시한 발언에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재차 높아 지자 달러 대비 큰 폭의 강세 시현
- 후반,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주장한 미련 위원장을 연준 이사 후임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에 추가 강세. 이어 주 후반, 러-우 휴전 기대감에도 영토 문제 불확실성에 강세폭 되돌리며 1.16달러대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1586	1.1699	1.1528	1.1642	+0.0056



엔화 동향

- 주초, 미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예상 크게 하회하자 연준 완화적 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달러 대비 강세 출발. 이어 일본 서비스업 PMI 개선에도 미-일 관세 불확실성 지속 등에 약세 전환
- 중반,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금리인하 지지 발언에 달러 약세 나타나자 재차 강세
- 후반, 연준 비둘기 성향 강화 전망 속에 약달러 분위기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 지속. 이어 주 후반, 일본 내 정치 불안이 재부각된 가운데 약세 전환하며 147엔대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7.4	148.1	146.6	147.7	+0.3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8/4~8/8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초반,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'충격' 수준 보임에 따른 글로벌 금리 급락에 연동하며 국고채 금리도 하락 출발. 이어 국고채 시장은 전일 미 국채 시장 흐름을 반영한 대외 금리 하락 추세에 강세 양상 지속 시현
- 중반 들어, 외국인 투자자 중심 국채선물 순매수에 장기 구간 중심 국고채 시장 강세가 이어졌으나 아시아 장에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 이에 국고채 금리도 연동 양상 시현
- 후반 들어, 한은 총재의 8월 금통위에 대한 금리 동결 가능성의 언급 속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하락 전환 시현. 이어 주 후반, 특이 이슈 부재한 가운데 차주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관망 속에 미 국채 30년 입찰 부진에 따른 국채금리 약세 압력 반영 등으로 소폭 상승 마감



주간 증시 동향

- 초반,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 밑돌면서 트럼프 관세 충격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투자심리 약화되었으나, 전주 후반 증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며 상승 출발. 이어 전일 미 고용지표 악화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쿠팡과 연준 이사 퇴임도 9월 인하 가능성을 높인 가운데 뉴욕증시 기술주 급등 영향 반영 속 상승세 유지한 국면. 중반, 트럼프 품목 관세 위협에 대한 경계감 확대되며 외국인과 기관 팔자 우위에도 보합 흐름 시현. 후반 들어,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발효 당일이었지만, 뉴욕 금융시장 기술주 호조 속 반도체 100% 관세 부과 계획 등이 사실상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것으로 인식되며, 미국내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로 4거래일 연속 상승. 이어 주 후반, 비둘기 성향 연준 기조 예상에도 미-러 정상간 우-러 전쟁 종전 회담 이슈 등으로 방산 관련주 중심 하락이 코스피 지수 하락 견인하며 마감